

‘강북형’ 하자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 연구

이부영

2013-PR-23

‘강북형’ 하자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이부영	한국교육복지포럼 대표
연구원	홍도미	대안학교 스쿨제프 대표
	변명기	북부교육희망넷 노원대표
	이명승	북부교육희망넷 운영위원
	홍양선	미술치료사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차례

I	연구의 개요	10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범위 및 내용	12
II	강북3구의 지역적 특성	14
1	강북3구의 형성과정	14
2	강북3구의 사회경제적 배경	16
2 1	재정자립도 및 기초생활수급자	17
2 2	면적과 녹지 및 공원수	18
2 3	문화시설	19
3	강북3구의 청소년 현황	19
3 1	법정 저소득 학생 현황	19
3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20
3 3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22
3 4	청소년시설 현황	23
III	‘강북형’ 하자센터의 모색	26
1	도시형 대안학교 둘러보기	26
1 1	삼각산 재미난 학교	26
1 2	성장학교 별	29
1 3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31
2	영등포 ‘하자센터’ 들여다보기	33
2 1	하자센터의 설립 배경 및 현황	33

2 2	하자센터의 변화와 도전	36
2 3	연구의 시사점	37
3	학교 밖 청소년 심층 면담	38
3 1	면담 개요	38
3 2	면담 질문지	39
3 3	면담 내용	40
3 4	면담 결론	43
4	청소년 전문가 간담회	44
4 1	간담회 개요	44
4 2	간담회 내용	45
4 3	종합 토론 요약	48
5	강북3구의 자연자원 찾아보기	50
5 1	북한산 국립공원	50
5 2	서울창포원	52
5 3	그 외의 주요 생태계	53
6	도시농업 알아보기	53
6 1	식량주권으로 본 농업의 중요성	54
6 2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55
IV	대안모델로서의 ‘강북형’ 하자센터	60
1	세 가지 키워드	60
1 1	키워드 하나 - 생태환경	60
1 2	키워드 둘 - 치유와 힐링	61
1 3	키워드 셋 - 농업, 직업체험	62
2	강북형 하자센터의 체계와 내용	63
2 1	생태환경 체험센터	64
2 2	치유와 힐링센터	65

23	농업분야 직업체험센터	65
V	결론 및 정책제언	70
1	결론	70
2	정책제언	70
	참고문헌	76

표차례

표 2-1	강북3구의 일반현황(2013년2/4분기)	17
표 2-2	강북3구의 면적 및 생활환경 일반현황(각 구청 일반현황)	17
표 2-3	강북3구의 문화시설현황	18
표 2-4	강북3구의 교육일반현황	19
표 2-5	2010년 강북3구의 학업 중단율	20
표 2-6	구청별 학교수업중단 및 자살한 학생수(2011년~2013년 8월)	21
표 2-7	강북3구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현황	22
표 2-8	강북3구의 청소년시설 현황	23
표 3-1	심층면담 요약	40
표 3-2	북한산 국립공원 연도별 탐방객수	50

그림차례

그림 2-1	행정구역 변천 1914~1963년 서울지도	14
그림 2-2	행정구역 변천 1995년 서울지도	15
그림 3-1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시행 중인 수학여행프로그램	51
그림 3-2	서울창포원 안내 사진	52
그림 3-3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추이	53
그림 3-4	OECD 주요국 식량자급률	54
그림 4-1	‘강북형’ 하자센터의 체계	63
그림 4-2	도봉구 친환경 영농체험장	66
그림 4-3	서울시 거리 꽃밭 조성사진	66
그림 4-4	가정버섯 재배사진	67

I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I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세계 각국의 교육 패러다임은 2003년 OECD 보고서에서 제안한 핵심역량¹의 기준에 따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09년 ‘미래형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는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
- 교육부는 지난 3월 28일 주요 교육정책으로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과 창의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도입, 학생중심의 맞춤형 진로상담과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예체능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별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립하여 정책 변화에 대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인프라는 전혀 준비가 안된 상황이다.
- 그리고 이러한 제도교육의 변화는 학교 밖 청소년²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 다녀야 할 연령대의 청소년 713만 명 가운데 공식통계에서 파악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28만 명에 이른다.
- 2000년대에 들어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종합대책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23일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

1 OECD 보고서의 핵심역량 : 2003년 OECD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진행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제안한 핵심역량은 언어, 지식, 정보, 기술 등 지적 도구의 활용 능력, 이질적 집단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자신의 생애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자율적 행동 능력 등 3가지 범주로 요약됨.

2 학교 밖 청소년 :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함(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 중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학업중단 학생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은 전국에서 68,188명(1.01%)이고, 서울은 16,126명(1.38%)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 한발 앞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청소년들의 자립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이 마련되었다. 주요 사업인 영등포(서남권) 하자센터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서울의 4개 권역에 ‘제2의 하자센터’를 확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평구(서북권)에 ‘제2의 하자센터’ 설립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단계적으로 동북권과 동남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 한편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도시농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 큰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조례’를 공포하고, 2012년을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했다. 서울시는 2013년 ‘도시농업 사업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가구당 도시텃밭 면적을 3.3㎡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도시텃밭이 현재 면적의 10배 이상 늘어나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도시 청소년들의 정서발달과 생태환경 교육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농업분야의 직업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 ‘제2의 하자센터’는 이러한 교육환경과 지역사회의 변화에 알맞게 특성화된 모델이 나와야 한다. 1999년에 설립된 영등포 ‘하자센터’가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면, ‘제2의 하자센터’는 또 다른 다양한 콘텐츠의 모색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와 더불어 지역자원이 활용되고 삶터와 배움터 및 일터가 하나로 연계되는 지역에 근거한 ‘제2의 하자센터’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 강북3구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등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울창포원과 도시텃밭 등 넓은 녹지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강북3구의 이러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강북형’ 하자센터 설립을 제안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강북권에 힐링과 치유센터, 생태 환경 체험센터, 농업분야의 직업체험센터가 결합되는 통합형 하자센터의 대안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내용

- 이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서울시가 향후에 ‘제2의 하자센터’를 설립할 예정지역인 동북권 가운데 강북3구(강북구/노원구/도봉구)로 한정하였으며, 사전 연구라는 점에서 부지 선정이나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정책 대상을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이 연구의 주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삼았다.
- 제1장은 연구 개요로서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등을 제시하였다.
- 제2장은 강북3구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배경과 청소년 현황을 조사하였다.
- 제3장은 이 연구의 주제인 강북형’ 하자센터에 대한 모색으로 여섯 단계의 연구과정으로 진행되었다.
- 제4장은 ‘강북형’ 하자센터를 위한 키워드 3가지를 제시하고, 힐링과 치유, 생태와 환경, 농업 직업체험이 통합되는 새로운 하자센터의 대안모형으로서 ‘강북형’ 하자센터를 제안하였다.
- 제5장은 서울시에 강북지역에 ‘강북형’ 하자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서울시 ‘제2의 하자센터’ 설립에 앞서 고려할 점을 제안하였다.

II 강북3구의 지역적 특성

- 1 강북3구의 형성과정
- 2 강북3구의 사회경제적 배경
- 3 강북3구의 청소년 현황

II 강북3구의 지역적 특성

- 제2장은 먼저 강북3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 지역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간략히 짚어보았다. 그리고 이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을 보여주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청소년 현황을 조사하였다. 통계자료는 2013년 2/4분기 서울시통계표와 각 자치구의 일반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1 강북3구의 형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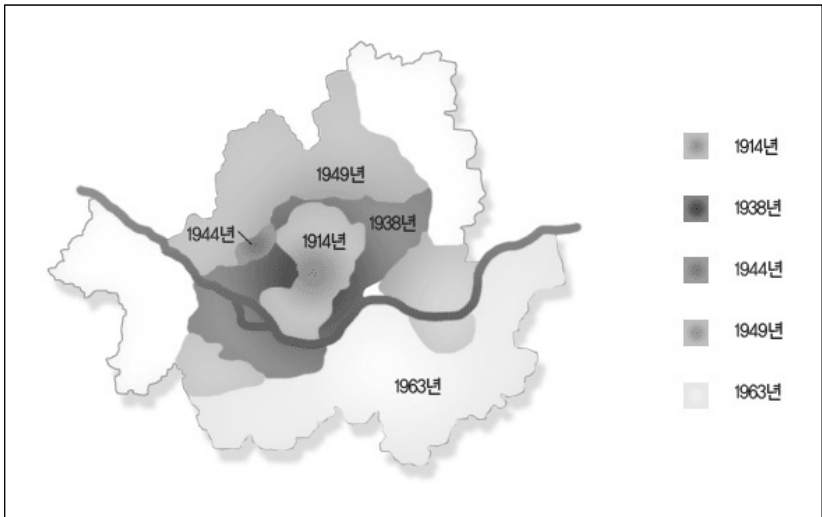


그림 2-1 행정구역 변천 1914~1963년 서울지도

자료 : <http://gis.seoul.go.kr/index.jsp>

- 서울시 동북권에 위치하고 있는 강북3구는 행정구역으로 원래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과 양주군 노해면에 속해 있었다. 1936년 송인면이 경성부로 편입되어 성북구 관할이 되었고, 1962년에는 서울시의 팽창에 따라 송인면과 노해면 일대가 성북구로 편입되었으며, 1973년에는 성북

구에서 도봉구가 분구되었다. 그리고 도봉구에서 1988년 노원구가 분구되고, 이어 95년에는 강북구가 분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서울외곽의 접경지역인 이곳은 1960, 1970년대에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몰려든 도시 빈민과 서민들로 형성된 전형적인 서민 밀집지역이다. 60년대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농촌사회는 붕괴되고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에 의해 청계천 주변과 산자락에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되었다. 70년대에 이르러 급속하게 팽창된 서울의 인구 집중은 여러 사회 문제를 드러내게 되었고, 70, 80년대 정부의 강력한 도시미화사업과 도심재개발 사업에 따라 쫓겨난 철거민들은 도시외곽의 달동네 판자촌으로 수용되었다.



그림 2-2 행정구역 변천 1995년 서울지도

자료 : <http://gis.seoul.go.kr/index.jsp>

- 1980년대 이후 이 지역은 서민 대상의 임대, 주공아파트 단지로 변모하였는데, 이 시기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는 개발논리에 밀려 쫓겨났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지어진 것이다. 90년대 들어서면서 강북3구에

위치하던 공장과 기업들이 대부분 이전하여 현재는 소형아파트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강북3구에는 70, 80년 대의 서민 주거지역의 모습이 여러 곳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린벨트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녹지 공간이 많이 남아 있다.

2

강북3구의 사회경제적 배경

- 지난해 5월 강북 4개 구(강북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 구청장들은 ‘서울 동북4구 지역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강북 4구에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17.5%가 살고 있지만, 일자리는 7.3%에 불과하고, 출·퇴근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문화 여가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동북4구 구청장들은 향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 구청장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한 마디로 잘 설명하고 있다. 강북3구는 값싼 집값으로 서민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 문화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 강북3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통계연보와 자치구별 일반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인구와 면적, 재정자립도와 기초생활수급자, 녹지 및 공원 보유수, 문화생활의 기반이 되는 공원, 공연장, 도서관, 영화관 보유 현황 등을 비교해보았다. 이어 교육 및 청소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별 특성 현황을 통하여 법정 저소득 학생수, 학업 중단율, 저소득 한부모 가족수, 청소년 시설 등도 비교해 보았다.

표 2-1 강북3구의 일반현황(2013년2/4분기)

구분	인구(명)	노동 및 산업		재정자립도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체수	종사자수		
서울	10,442,426	752,285	4,498,312	41.8% (자치구 평균)	200,371명
강북구	344,546	62,791	68,217	26.2%	10,481명
노원구	597,405	25,636	103,761	22.3%	21,315명
도봉구	362,862	17,659	62,791	27.6%	5,220명
강서구	574,355	31,069	163,250	29.1%	17,596명
관악구	539,132	25,956	108,511	33.0%	10,561명

자료 :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

21

재정자립도 및 기초생활수급자

표 2-1의 2013년도 2/4분기 서울통계표 일반 현황을 보면, 강북3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는 1,304,813명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1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서울 자치구 평균인 41.8%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0%대 중반 안팎에 머물러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수는 노원구가 21,315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강서구, 관악구, 강북구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2 강북3구의 면적 및 생활환경 일반현황(각 구청 일반현황)

구분	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공원수
강북구	23.61km ² (서울시의 3.9%)	9.89km ² (41.9%)	0.27km ² (1.2%)	0km ²	13.42km ² (56.9%)	83개소
노원구	35.46km ² (서울시의 5.86%)	12.56km ² (35.4%)	0.57km ² (1.6%)	0km ²	22.33km ² (63%)	167개소
도봉구	20.70km ² (서울시의 3.42%)	8.7km ² (41.8%)	0.28km ² (1.3%)	1.47km ² (7.0%)	10.39km ² (49.9%)	74개소

면적과 녹지 및 공원수

서울시 자치구의 일반현황을 나타낸 표 2-2를 보면 강북3구의 총면적은 서울시 총면적의 13.19%를 차지하고 있어 자치구별 평균에 가깝고 인구수 대비 면적은 약간 넓은 편이다. 강북3구의 경제기반인 상업지역은 1%대로 매우 낮고, 도봉구를 제외하면 강북구와 노원구에는 공업지역이 거의 없어 베드타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녹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거환경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 보유수는 면적이 넓은 노원구가 167개소를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강북구와 도봉구는 각각 83개소와 74개소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인 18위,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 강북3구의 문화시설현황

구분	운영주체별		도서관	영화관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서울	87개 (100%)	198개 (100%)	475개 (100%)	71개 (100%)
강북구	3 (3.44%)	0 (0%)	9 (1.89%)	2 (2.81%)
노원구	2 (2.29%)	2 (1.01%)	17 (3.57%)	2 (2.81%)
도봉구	3 (3.44%)	0 (0%)	6 (1.26%)	0 (0%)
종로구	11 (12.6%)	86 (43.4%)	50 (10.5%)	8 (11.2%)
중구	13 (14.9%)	16 (8.08%)	60 (12.6%)	8 (11.2%)
강남구	7 (8.04%)	24 (12.1%)	40 (8.42%)	6 (8.45%)

자료 :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2013년2/4분기))

지역의 문화시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문화생활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표 2-3의 서울통계표에서 공연장, 도서관, 영화관 등 문화시설 보유현황을 비교해보면 강북3구는 문화시설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도서관과 영화관은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도봉구에는 영화관이 단 하나도 없다.

종로구와 중구, 그리고 강남 지역의 문화시설 보유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는 이유가 서울 도심권과 청소년 선호 지역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해주는 것은 아니다.

3

강북3구의 청소년 현황

3.1

법정 저소득 학생 현황

표 2-4 강북3구의 교육일반현황³⁾

구분 (학교수)	초등학교 (학교수)	중학교 (학교수)	고등학교 (학교수)	초등학교 법정저소득 학생수(명)	중등학교 법정저소득 학생수(명)	고등학교 법정저소득 학생수(명)	대학 진학률
서울시 (1,290개)	502,000 (594개)	315,241 (379개)	344,391 (317개)	17,780 (3.54%)	17,189 (5.45%)	20,696 (6.0%)	55.8%
강북구 (34개)	14,066 (14개)	9,900 (13개)	7,437 (7개)	990 (7.03%)	916 (9.25%)	526 (7.07%)	55.9%
노원구 (93개)	36,610 (42개)	24,927 (26개)	31,819 (25개)	1,345 (3.67%)	1,416 (5.68%)	2,420 (7.60%)	55.4%
도봉구 (46개)	20,400 (23개)	11,590 (13개)	10,473 (10개)	731 (3.58%)	613 (5.28%)	620 (5.91%)	61.0%

3

2012 서울교육통계연보와 2012년 서울 교육청 자치구별 특성현황 자료 참조

2012년도 서울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시의 초중고 전체 학교 수는 1,290개이며 이 중 강북3구에 173개교가 있어 1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별 특성현황 자료에서 법정 저소득 학생 수를 보면 노원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고, 비율로 보면 강북구가 가장 높은 편이며 도봉구도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것은 강북3구의 형성 과정에서 보았듯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강북구와 노원구는 참여정부 시절 사회양극화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시행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지역⁴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표 2-5 2010년 강북3구의 학업 중단율⁵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평균
			일반계고	전문계고		
서울시	4,420 (1.52%)	5,462 (0.85%)	5,624 (0.84%)	3,372 (0.29%)	18,908 (0.95%)	1.1%
노원구	243 (1.71%)	275 (0.99%)	255 (0.97%)	218 (0.37%)	991 (1.02%)	
도봉구	109 (2.17%)	103 (1.26%)	111 (0.87%)	43 (0.40%)	366 (1.43%)	1.27%
강북구	34 (4.37%)	120 (0.90%)	85 (0.76%)	7 (0.83%)	249 (1.37%)	

2010년 서울교육통계연보에 나온 서울시 전체 학업중단율(표 2-5)을 보면 서울시가 1.1%인 데 비해 강북3구는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는

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2003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임.

⁵ 2010년 서울교육통계연보 참조

1.27%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1990년대 후반 사회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교육격차 문제와 함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최근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여 한 해에 7만 명을 넘어서자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제서 본격적인 실태조사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이 학교를 나오는 순간 교육과 복지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값싼 노동시장이나 범죄세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표 2-6 구청별 학교수업중단 및 자살한 학생수(2011년~2013년 8월)⁶

구청별	학생수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학교수업중단 학생수	학교수업 중단율	자살 학생수
서울시	3,501,578	119,901	28.88	40,711	1.16%	50
강북구	94,968	3,235	29.36	698	0.73%	1
노원구	280,861	9,316	30.15	2,546	0.91%	1
도봉구	128,175	4,495	28.52	885	0.69%	-
강남구	211,083	6,656	31.71	4,800	2.27%	5
서초구	153,402	4,812	31.88	3,590	2.34%	3
용산구	70,732	2,599	27.22	1,079	1.53%	-
송파구	253,535	8,348	30.37	3,349	1.32%	3

지난 9월26일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2년 반 동안 서울시내 4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50명의 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서울교육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위 교육열이 높고 소득이 높은 지역(서초, 강남, 용산, 송파구 등)의 학교수업중단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⁶ 2013년 9월 26일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의 보도자료 참조(최근 2년 반 동안 서울시 학교 중단자 및 자살 학생 수)

학업중단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이 어렵지만 유학, 이민, 검정고시 등 자발적 학업중단자를 포함한 수치로 유추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통적으로 학업중단율이 높은 강북3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33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표 2-7 강북3구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현황⁷⁾

기간	구분	합계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가구수	가구원수	소계		재가보호
				가구수	가구원수	
2012	서울시	37,845	97,913	26,227	67,295	26,106
	강북구	2,435	6,260	1,615	4,143	1,615
	노원구	2,847	7,533	1,237	3,280	1,227
	도봉구	1,795	4,555	1,149	3,409	1,149
	중랑구	2,837	7,187	2,129	5,326	2,129

서울시 통계연보에 나온 2012년도 서울시 자치구별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표 2-7)을 보면 노원구가 2,847가구(가구원 7,533명)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인접 지역인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자치구별 한부모 가족 현황은 지역 청소년들의 가정적 배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로, 특히 지역별 학업중단율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7 서울통계연부 참조

표 2-8 강북3구의 청소년시설 현황⁸⁾

기간	구분	합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개소	이용인원	개소	이용인원	개소	이용인원	개소	이용인원
2012	서울시	63	41,927	34	30,980	2	500	17	5,113
	강북구	3	1,212	1	1,050	1	102	1	60
	노원구	3	1,900	1	1,200	0	0	2	700
	도봉구	5	1,570	1	500	1	398	3	672
	영등포구	7	2,430	2	1,000	0	0	2	1,498
	강남구	4	4,700	3	3,000	0	0	0	0

표 2-8을 보면 서울시의 청소년시설은 총 63개가 있으며 강북3구에는 총 11개의 청소년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청소년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7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영등포구인데 이것은 하자센터 설립 이후 서울시와 지자체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던 결과로 보인다. 이용 인원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는 수련관 3개와 특화시설 1개를 운영 중인데 수련관은 3,000명이, 특화시설은 1,700명이 이용하고 있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강북3구는 표 2-9의 현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정작 이용 인원수에서는 시설이 부족한 지역보다 훨씬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시설 규모의 차이도 있겠지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차이도 클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이 거의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2012년도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강북3구에는 위기 학생을

위한 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한 곳도 없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력 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역시 노원구에 야학 형태로 하나 있을 뿐이며, 특히 도봉구에는 그룹 홈이나 쉼터가 한 곳도 없다. 결국 이 지역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행정적 지원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III ‘강북형’ 하자센터의 모색

- 1 도시형 대안학교 둘러보기
- 2 영등포 ‘하자센터’ 들여다보기
- 3 학교 밖 청소년 심층 면담
- 4 청소년 전문가 간담회
- 5 강북3구의 자연자원 찾아보기
- 6 도시농업 알아보기

III ‘강북형’ 하자센터의 모색

제3장은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북형’ 하자센터의 모색을 위한 과정으로 여섯 단계로 이루어졌다. <도시형 대안학교 방문 조사-영등포 하자센터 조사 연구-지역 청소년 대상 심층면담-청소년 전문가 간담회-강북3구 자연자원 조사-도시농업 알아보기>의 조사 연구 과정을 진행하였다.

1 도시형 대안학교 둘러보기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시형 대안학교(네트워크배움터)는 모두 29개가 있다. 이 배움터들은 모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외에 다양한 대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색 있는 3곳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삼각산 재미난 학교’, 소외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와 교육을 결합하고 있는 ‘성장학교 별’, 나눔 여행과 자립을 지향하고 있는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등 3곳의 대안학교를 방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 1 삼각산 재미난 학교

- 방문일시 및 방문자
- 일시 : 2013년 7월 23일
- 방문자 : 변명기, 심찬구, 김현수

- 학교 현황
 - 소재지 : 강북구 우이동
 - 설립연도 : 2004년 3월 초등과정 미인가 대안학교로 설립
 - 교육과정 : 초·중등 혼합형 과정(1~9학년)으로 학교 운영의 모든 과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짐.
 - 학생수 : 60여 명
 - 학교운영 : 마을 공동체 (사단법인) ‘삼각산마을’

○ 방문 보고

‘삼각산 재미난 학교’는 강북구 우이동과 인수동 일대에 있는 삼각산 재미난마을 안에 있는 마을공동체 학교이다. 삼각산 재미난 마을은 교육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생활문화 공동체로 성장한 마을이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이 마을은 박원순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우수사례로 소개되면서 마을견학을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단체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이 마을의 역사는 1998년 강북구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인 ‘꿈꾸는 어린이집’이 구성돼 그곳에 아이를 보내던 부모들 간의 모임이 결성되면서 시작됐다. 즉 아이들이 학교 갈 나이가 되면서 대안교육을 고민하던 부모들이 새로운 학교를 만들자는 의견을 모았고, 이에 관심을 가진 지역의 단체와 교육 활동가들이 결합하면서 2003년에 초등 대안학교로 출발하게 되었다.

2011년에는 마을 주민들이 사단법인 ‘삼각산재미난마을’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 가꾸기를 시작했다. 2013년에는 초등 과정을 마친 아이들에게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중등 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7학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 학교의 전교생은 60여 명이고 신입생 모집정원은 16명이다. 신입생 모집 과정은 학교설명회를 통해 지원자를 만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친다.

이 학교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의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가능하다’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입시위주 교육을 배제하고 아이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자신의 속도와 자신의 방법으로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교사와 아이들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배움의 동기와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의 원칙, 오감을 통한 경험 속에서 배움을 형성하는 체험의 원칙, 아이들 하나하나의 고유한 개성과 배움의 속도 등을 존중하는 개성화의 원칙을 갖는다.

1, 2학년 과정은 학년별로 반을 구성하여 저학년의 발달체계에 맞는 생활중심의 교육활동으로 말과 글, 수학과 같은 기초학습과 나들이와 생태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3학년부터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혼합 연령으로 반을 편성하여 활동과 협력 중심의 프로젝트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우리들의 생활공간(교실, 교실 밖 뜰, 마을)을 즐겁게 만든다’에서 찾으며, 소재는 ‘우리가 사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옷) 세 가지를 중심으로’ 찾는다. 프로젝트에서는 손과 몸을 사용하는 실제적인 작업이 중심이 된다.

이 학교 아이들은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텃밭을 가꾸어 유기농 밥상을 차리고 목공을 배우는 등 생태적인 삶과 철학이 기본으로 녹아 있다. 마을 공동체와 학교 구성원 간의 공유된 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나가는 생활에 만족하며 생활의 여유를 찾는다.

마을법인이 운영하는 재미난 카페, 마을 목공교실, 도서관, 마을극단 우이동, 재미난 밴드 등 재미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마을은 배움과 일과 삶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경제에 대한 개인의 불안을 넘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건설을 꿈꾸고 있다.

마을법인은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육성되면 지역사회

의 건강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마을공동체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 성장학교 별

- 방문일시 및 방문자
 - 일시 : 2013년 6월 2일
 - 방문자 : 이부영, 변명기, 심찬구, 김현수

- 학교 현황
 - 소재지 : 서울 관악구 청룡동
 - 설립연도 : 2002년 치유적 대안학교로 설립
 - 학생수 : 50여 명
 - 교육과정 : 중·고등 통합과정으로 교과내용은 구성원들의 관심과 토론, 평가에 의해 이루어짐.
 - 학교운영 : (사단법인) ‘청소년과 가족의 좋은 친구들’⁹

- 방문 보고

‘성장학교 별’은 모두가 사랑으로 성장하는 깨우침의 공간이라는 모토로 설립된 중·고등 통합 도시형 비인가 대안학교이다.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서도 특히 학교와 사회에서 소외받으며 고통받는 빈곤, 장애청소년

⁹ (법인 소개)사단법인 ‘청소년과가족의좋은친구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 특히 학교와 사회에서 소외받으며 고통받는 빈곤, 장애청소년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좀 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폭력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문가, 의사, 상담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대안교육사업, 아동·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 작업장 등의 다양한 중점사업을 통해 많은 청소년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접하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좀 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폭력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빛나지 않는 별은 없다’는 슬로건으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서 삶의 주인이 되는 법까지를 터득하도록 하는 것이 이 학교의 궁극적인 교육 목표이다. ‘모든 교육은 영성추구를 기반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록 종교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내면에 있는 인간의 고유한 마음 혹은 정신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발현하는 내면의 힘, 영성을 발견하고자 노력한다.

프랑스 프레네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특히 자기표현을 강조하며 학교 신문 만들기가 중요한 학습활동 중 하나다. 상처받고 정서적으로 힘겨운 청소년들에게 ‘표현’은 대화이며 대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학교의 주요 교육활동은 글, 그림, 작업 등을 통해 갈등해결, 분노조절, 반편견, 낙관주의, 둔감력 훈련을 하며, 감성수업은 거절수업, 감정사용하기와 인지(영, 수), 문화학습(난타, 밴드, 연극, 미술, 애니, DIY 등), 실용학습(카페, 진로동아리), 봉사활동(서비스 러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교는 프레네 학생자치회의 학생회의를 중요한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회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토의하며 동의와 협동을 얻어내는 방법을 익힌다. 이 학교는 교사의 성장도 중시하여 교사들의 주도성과 열정이 높으며 교사들의 근무 기간이 다른 대안학교에 비해 긴 편이다.

복도에는 학생들이 제작한 학교신문이 1호부터 연도별로 전시되어 있어 이 학교의 역사와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학교의 공간마다 여기저기 붙어 있는 학생들의 그림과 낙서에서 자기표현을 통해 활달하게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최근에는 청년이 되어가는 학생들을 위한 ‘청년 별 학교’를 운영하여 취업 알아보기와 자기작업 만들기 사업이 추가되고 있다.

13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 학교 현황
 - 소재지 :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 설립연도 : 2001년 도시형 대안학교로 설립
 - 교육과정 : 중·고등 통합과정으로 자립에 대한 징검다리 학습, 자립을 위한 나눔 여행, 자립을 기획하는 학습으로 구성됨.
 - 학생수 : 30여 명
 - 학교운영 : (사단법인) 청소년의 꿈

○ 방문 보고

관악구 난곡지역에 위치한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는 1973년 3월 ‘관악 청소년 실업학교’에서 출발한 20년의 역사를 가진 대안학교이다. 2000년 ‘남부야학’으로 전환하고 산하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청소년 교실’을 개설하였다가 2001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를 개교하게 되었다.

이 학교는 빈민 지역 운동과 뿌리를 같이 하는데, 옛날에는 야학에 다니면서도 신분상승의 꿈을 기르던 아이들이 요즘은 학교마저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센터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학교와 제도로부터 소외되었지만 배움은 멈추지 않으려는 청소년들이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이 학교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여행을 통해 돌봄과 나눔의 가치를 학습하면서 배움을 실천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예비과정에 해당하는 ‘징검다리 학습’으로 탈학교 청소년들이 다시 배움의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과정이다. 즉 상담과 멘토링 등의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다시 배움의 과정을 시작하게 도와준다.

둘째는 ‘나눔 여행 학습과정’으로 징검다리 학습과정을 마치고 나서 입학하게 된다. 즉 3년 6학기 학습과정 속에서 자립을 위한 학습 기반을 만들어 나가며, 인문, 수리, 외국어 등을 학습하는 바탕교과와 손짓, 몸짓, 소리 등을 학습하는 문화예술 교과와 나눔 여행 프로젝트 교과로 진행된다.

셋째는 ‘자립기획 학습과정’으로 나눔 여행을 마치고 스스로의 진로를 직접 경험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즉 자신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기획, 정리하게 되며, 인턴십과 논문과정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민하고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 학교는 20년의 역사만큼 체계가 잘 잡혀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지역 안에 잘 형성된 관계망을 가지고 있어 공교육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며 위탁형 대안학교의 역할도 맡는다. 학생의 입학 과정은 상담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주 3일 6주 동안 진행되는 예비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규 학습 과정에서 진행되는 ‘나눔 여행’은 해외 자원봉사 활동으로 자립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교의 특징은 무엇보다 자립을 돕는 일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굳이 학제를 갖추지 않고 길든 짧든 크고 작은 성과를 안고 자립을 기획하도록 돕는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특히 해외 자원봉사는 세상에 대한 눈을 틔우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프로젝트 수업이다. 스스로 어려운 처지이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어려운 지구촌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기획해보는 진지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공교육의 한계와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대안학교들은 설립자의 교육 철학이나 지역과 대상에 따라 교육과정과 운영 방식이 다양하다.

‘삼각산 재미난 학교’는 교육을 매개로 형성된 공동체가 발전하여 마을 전체를 바꾸어나간 마을 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례로 교육과 마을이 만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사점이 크다.

‘성장학교 별’은 치유와 교육을 결합시킨 학교로 특히 ‘표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위해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개발된 프로그램과 교육 방식이 인상적이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은 해외 봉사활동과 여행을 결합한 ‘나눔 여행’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해외 봉사활동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방문한 3개 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은 ‘강북형’ 하자센터를 구성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2 영등포 ‘하자센터’ 들여다보기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하자센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하자센터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긍정과 비판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연구 목적인 ‘강북형’ 하자센터 설립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범위 안에서 하자센터의 성과와 전망을 살펴보기로 했다.

2.1 하자센터의 설립 배경 및 현황

하자센터(haja center)는 연세대학교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학습 공간이다. 공식 명칭은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로, ‘스스로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도 하자’ 등 ‘자율과 공생’의 원리를 모토로 운영되고 있어 하자센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자센터는 1998년 IMF 구제금융 체제를 겪으며 저성장 고실업의 위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삶의 활력을 잃지 않고 사회적 나눔을 실천할 줄 알게 하려는 모색을 위해 설립하게 되었다. 학력증진보다 취업증심, 산업화된 노동보다 문화 역량의 강화와 문화 창조자의 길을 제안하였다. 하자센터는 초기에 웹, 영상, 음악, 디자인, 시민 작업장 등 5개의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도제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창의적인 관계 맺기를 통한 상호 성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2001년부터 하자작업장학교를 개설하였고,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로 시작한 노리단이 2007년에, 오가니제이션 요리가 2008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다.

또한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커리어워크 등 청소년들의 진로설계를 돕는 ‘커리어하자’와 다감각, 통합적으로 구성된 창의 학습 커뮤니티 ‘C-플랫’ 등 2대 창의성 프로그램 라인업을 통해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립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하자센터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진로 설계 및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장년들에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하자센터는 네 개의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프로젝트가 있고, 수시로 열리는 십여 개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 광범위하게 창조 산업 분야 사회적기업들과 다수의 청년 문화 작업자 집단이 참여하고 있다.

창의 네트워크 학교는 4개의 학교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자 작업장 학교는 탈학교 10대 중심의 작업자를 길러내는 학교이며, 로드스콜라는 도보여행을 다니며 현장 속의 인문학을 몸소 배우는 학교이다.

또한 연금술사 학교는 10대 후반 자립의 시기에 대면하게 되는 생존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나가는 일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영세프는 요리를 통해 꿈과 자립을 실현하는 학교이다.

그리고 창의학습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커리어 하자’(Career haja)와 ‘C-플랫폼’(Creativity platform)이 있다. 커리어 하자는 재학생 대상 ‘일일체험프로젝트’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는 인기 프로그램이고, ‘일취월장 직업체험 프로젝트’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 예술분야의 새로운 직업군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심화체험 프로그램이다. ‘커리어 워크’는 실제 직업인들의 일상에 밀착해 연극, 뮤지컬 등 문화영역의 진로 설계와 창조 활동을 하는 심화형 프로젝트이다.

C-플랫폼은 4개의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다. ‘창의리더 특강 시리즈’는 다양한 멘토를 만나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며, ‘불만을 해결하는 창의성’은 일상에서 느끼는 불만을 스스로 발견해 내고 팀별로 협력해 해결해나가는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자.란.다’는 ‘청소년 도시농부 프로젝트’라는 부제가 달린 것처럼 생태적 호기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도심의 녹지를 만나는 프로그램이고, ‘하자센터 청소년창의위원회’는 하자마을에서 모아낸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보는 자율적 커뮤니티이다.

하자센터의 성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업은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이다. 창이팀(이로울리 / Energy / 2-Secondhand)은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공동 사업을 진행한다. 하자센터는 2007년 노동부로부터 문화예술분야 노리단이 1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2008년엔 요리의 오가니제이션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2009년에는 10개의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시작하여 2개의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기업 또한 인증을 받기 위해 준

비 중이다. 2010년에는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공생 마케팅, 상생과 나눔, 유통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적기업 공공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2

하자센터의 변화와 도전

하자센터는 최근 모든 교육활동에서 '창의성' 찾기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행사로 매년 열리는 '창의 서밋'은 '창의'를 주제로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워크숍과 심포지엄을 여는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하고 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2013년 제5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은 주제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로 설정하고, 생태주의로 전환을 한 창의적 사람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는 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최근 하자센터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10대 후반 청소년에 대한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중·고교 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는 징검다리 역할이 아니라 곧바로 직업 공간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졸업보다 취업, 창업으로서의 방향성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다.

하자센터의 새로운 작업 중 하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태교육에 대한 접근이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생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친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지금 하자센터는 입구에서부터 옥상까지 빈 공간이 온통 텃밭으로 꾸며져 있다.

이런 변화의 가운데는 창의학습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운영되는 '청소년 도시농부 프로젝트'가 있다. 흙이나 자연과 생소하게 살아왔지만 생태적 호기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도심의 녹지를 만나는 '도시농부하자'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옥상농원을 기반으로 식물 관찰, 텃밭 가꾸기, 지렁이 사육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진다. 생태적 삶에 대한

멘토와의 만남, 공동 아트워크와 쇼하자 등을 통한 또래들과의 창작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생산된 신선한 채소들은 바로 사회적기업인 ‘오가니제이션’의 요리를 통해 식탁에 오르고 있다.

23 연구의 시사점

먼저, 하자센터의 가장 큰 장점과 성과는 교육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생활이 규제되는 학교 안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청소년들이 ‘하고 싶을 때’까지 믿고 충분히 기다려주는 일이다. 그리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지원해주는 방식이 최고의 교육 방법임을 입증해가고 있는 중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에서 성취감과 자존감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교육방법은 오늘의 하자센터를 있게 한 원동력일 것이다.

또 하나는 ‘배움’이라는 관점과 철학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곳에서는 정규학교에서 절대시하는 교과 성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학벌과 출세라는 사회적 기준보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즐겁게 사는 길을 찾고, 가치 있는 삶을 더불어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배운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라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하자센터가 시도하는 생태 문제와 도시농업으로의 접근은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지금 하자마을의 최대의 화두인 ‘창의’라는 개념의 방향도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모색이다. 하자센터의 이런 움직임은 바로 ‘강북형’ 하자센터의 지향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면담 개요

심층면담을 통해 강북 청소년들의 욕구를 분석해 보기로 했다. ‘강북형’ 하자센터의 내용과 형식을 만들어가기 위해 강북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 속에서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직업교육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했다.

면담 참여자는 9명(남자6, 여자3)이며 7명은 학교 밖 청소년이고 2명은 재학생이긴 하지만 위기 청소년이다.

면담은 홍양선 연구원을 중심으로 7월~8월 2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면담시기 : 2013년 7월 ~8월
- 면담자 : 홍양선(연구원)
- 면담 참여자(가명) : 김배경(남, 17) 김수진(여, 20) 김은서(여, 17) 송창민(남, 17) 심현규(남, 17) 오정욱(남, 17) 이창호(남, 17) 장규환(남, 17) 조아영(여, 17)

면담 참여자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배경)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의 암투병을 간호하며 친척과 함께 살고 있다.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가출과 지각, 자퇴를 반복하는 위기 청소년이다.

(김수진) 이혼가정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 중퇴이후 아르바이트로 살아간다.

(김은서) 부모가 이혼하고 각자 재혼한 상황에서 폭력적인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분노조절이 어려운 위기 청소년이다.

(송창민) 어려서 아버지가 가출한 모자 가정으로 고교진학을 못하고 음

악에 매달리고 있다.

(심현규) 아버지의 부도와 새 어머니의 방임 속에서 배다른 세 동생을 돌보며 살고 있다. 최근 가출하였으나 아버지의 설득으로 귀가하여 복학하였다.

(오정욱) 어머니가 가출한 부자 가정으로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오랜 왕따로 자신감을 잃고 고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이창호) 실습비를 못 내서 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

(장규환) 입학금을 못 내서 학교에 못 가고 있다.

(조아영) 실업계 학교를 다녔으나 성문제로 학교를 중단하고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있다.

심층면담 질문지

성별(). 나이(). 가족 관계:

1. 학교를 그만두게 된 원인은?
2.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요?
3.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4.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의 성격은?
5. 자연친화적 경험이 있나요? (동물기르기 등...)
6. 가지고 싶은 직업이 있나요?

표 3-1 심층면담 요약

이름 (가명)	학교중단사유	알바 경험	생활 수준	가족관계 문제상황	자연친화 경험	갖고 싶은 직업
김배경 (남, 17)	재학 중 부적응(십대폭력)	없음	중	부자가정	등산	회사원
김수진 (여, 20)	부적응	서빙	중하	부자가정, 지적장애 남동생, 할머니	애완동물 기르기	회사원
김은서 (여, 17)	재학 중 부적응	없음	중	조손가정 가정폭력	등산	귀농
송창민 (남, 17)	부적응	없음	하	모자가정 누나	등산	가수
심현규 (남, 17)	부적응(가출) 우울, 무기력, 학대	단기 알바	하	재혼가정 동생 3명 기초생활수급가정	애완동물 기르기	회사원
오정욱 (남, 17)	멀어서 우울, 무기력	없음	하	부자가정, 할머니	없음	없음
이창호 (남, 17)	부적응, 빈곤 여친과 헤어짐	단기 알바	하	모자가정, 동생	애완동물 기르기	없음
장규환 (남, 17)	부적응(교우관계) ADHD	없음	하	모자가정, 엄마, 누나 우울증	없음	없음
조아영 (여, 17)	남친문제, 성관련	서빙	중하	양부모, 할머니, 동생2명, 삼촌	애완동물 기르기	디자이너

표 3-1에 정리한 것처럼 면담 참여 청소년 대부분은 학교를 중단한 사유로 학교 부적응을 꼽았는데 9명 모두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손 가정이었다. 부적응의 구체적인 원인은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결국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난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위의 표에 보면 대부분 생활수준이 중하 또는 하 수준이었다. 이들의 빈곤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은 다양한 폭력이었으며 면담 참여자 대다수가 가정폭력으로 부모가 이혼했거나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난과 가정폭력은 학습지체로 이어져 면담 참여자 셋 중 하나는 영어의 파닉스라든가 수학의 분수 사칙계산을 하지 못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지체는

심화되어 고교과정에서는 교실에 앉아 있는 일 자체가 고역이 되고 조그만 어려움에 부딪쳐도 학교중단을 결심하곤 한다. 결국 이들에게 십여년의 학교생활은 학습된 무기력만을 배우게 하였을 뿐이다.

그저 옛날처럼 학교에 가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인식 수준 역시 청소년기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그르치는 원인이 되기 쉽다. 면담 참여자 가운데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자퇴서를 쓰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가지 않았다가 퇴학을 당했다고 한다. 이는 어머니가 학교에 안 가면 자퇴가 안 되는 줄 알고 버티고 있다가 결국 퇴학을 당하게 된 사례로 부모의 무지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였다. 이들은 가족이 대부분 막노동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기에도 허덕이다 보면 학교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학교에 입학하였다가 그만두고 다시 입학하거나 검정고시를 치르는 이 모든 과정에는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막상 학교를 나오고 나서 나름대로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대부분 손쉬운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서게 된다. 그런데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의 경우 오토바이 배달 일은 새로운 진로이기보다 파멸과 착취의 과정에 빠지기 쉽다. 시간을 다투는 오토바이 배달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오토바이 수리비는 임금에서 공제되고 치료비 부담으로 자칫 빚이 가중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고스란히 겪은 이창호는 실업계 학교를 다니다가 재료비 100만원을 내지 못해 학교를 그만둔 중퇴생이다. 돈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일에 대해 깊은 좌절을 느낀 그는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서투른 솜씨로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했다. 그러나 배달 이틀 만에 사고를 내고 다리와 허리를 다쳐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오토바이 배달 일은 대부분 몇 번이고 위험한 고비를 넘겨야만 능숙해지게 마련인데, 주변에서 더러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도

보게 된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부-진학-취업>이라는 과정을 제시하고 설득하려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에게 학습지체도 문제이지만 고등학교부터는 교육비 부담이 크게 가증되고 있다. 중학교까지는 부담하지 않던 수업료에다 참고서, 수학여행비, 실습비 등은 저소득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자라면서 가난에 시달리고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겪어온 아이들은 스스로 돈을 벌고 독립하려는 강렬한 욕구에 휘둘리게 된다.

면담 참여자들과 자연친화적인 경험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주말 농장이나 식물 재배 등 자연친화적인 경험을 확인해 보았으나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었다. 사실상 도회지에서 자라면서 이제 고1 나이의 학생들에게 특별히 자연친화적인 경험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만 참여자 9명 가운데 4명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답변했고 3명이 등산 경험을 내놓았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일은 생활수준이 어려운 기초수급 가정이나 돌봄이 부족한 한부모 가정에서 비용과 손길이 많이 가는 일이다. 형편이 좋은 중산층 이상 가정의 아이들은 애완동물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부모의 반대에 부딪쳐 포기하고 마는 데 비해 오히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당연한 가족의 하나로서 동물부양의 책임을 떠맡고 있다.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아이들의 대답은 단순하다.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단순하다. 한가족이고 친구니까 당연하다는 것이다.

남자 친구 문제로 학교까지 그만둔 조아영은 강아지의 옷을 만들어주면서 중단했던 디자이너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는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일을 직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어릴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으로 보살핌이 부족

했던 송창민은 교사폭행 사건으로 언론에 떠올랐던 학생이다. 강제전학을 여러 번 거쳐 겨우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교진학을 하지 못한 송창민은 하루 여섯 시간씩 베이스기타를 연습한다. 음악교사에게 인정받아 수업시간에는 안 들어와도 밴드연습은 빠지지 않던 그는 답답하고 화가 나면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한다.

이미 교사폭행으로 여러 학교를 전전한 상태에서 더 이상 과격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자신의 분노를 삭이기 위해 산을 오르는 것이다. 송창민은 거친 바위산의 우거진 숲 속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고 나면 분노나 답답함이 풀린다고 한다. 비슷한 대답을 한 김은서와 김배경 역시 등산을 통해 마음 속 응어리를 풀어낸다고 한다. 이들에게 주변 가까이에 산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면서도 하나의 행운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자연에서 치유의 힘을 새삼 확인하기도 하게 된다. 김은서는 조금 크면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한다. 이혼한 엄마가 시골에서 새 살림을 꾸려 평안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은서는 특별히 가진 기술이 없지만 자기는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시골생활을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김배경은 연구진을 따라 버섯학교를 견학한 일이 있는데 버섯재배사 자격증을 따면 대학을 갈 수 있고 직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자 친구에게도 같이 배우자고 권하고 있다. 흔히 청소년들은 농업분야의 일이나 직업에 관심이 없어 직업적인 대안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김배경의 경우처럼 주변에 직업체험센터가 있고 계기가 주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심층면담에서 ‘강북형’ 하자센터의 지역특성을 살린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알아보려 했지만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답변을 얻

을 수는 없었다.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 대부분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단지 좋은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먹고 노는 일에만 급급하였다. 학교를 중단하는 순간 먹을거리조차 중단되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처음에 접근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거친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 보면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한 나날이 이들의 가정과 일상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들이 사회에 나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맞는 교육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우선 심리정서적 치유와 진로설계가 단계별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청소년 전문가 간담회

4.1

간담회 개요

연구진은 강북형 하자센터 설립에 대한 지역 청소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연구진이 기본 발제를 하고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일시 : 2013년 7월 10일 늦은 7시
- 장소 : 창동역 북카페 ‘행복한 이야기’
- 발제자 : 홍도미(연구원, 스쿨 ‘제프’ 대표)
- 토론자 : 서정화(노원상상이룸직업체험센터장), 심한기(‘품’ 대표), 이영숙(도봉구 의원), 최수연(성미산학교 학부모), 황지선(도봉구청 청소년과 담당공무원), 김현수(스쿨 ‘제프’ 교사), 연구팀(이부영, 이명승, 변명기)

- 발제문 요약

‘하자센터’의 정식 명칭은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이다. 1999년 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와 IMF 경제위기 이후 대두된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이 센터는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의 대안학교를 비롯한 문화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과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북3구는 낮은 대학진학률과 높은 학교중퇴율, 부모들의 어려운 환경과 부족한 교육환경 등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의 미래는 어느 지역보다 답답하다. 하자센터를 찾는 청소년들과 이 지역 청소년들은 사회경제적, 문화적으로 격차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청소년에게 알맞는 종합적인 담론과 전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

강북3구는 임야와 녹지의 비율이 높은 자연적 특성이 있다. 영등포 하자센터가 청소년들 작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처럼, 이 지역 청소년들이 도봉산이나 우이동 안내자가 되고 나무박사가 되며 조합을 만들어 전국 각지의 노는 땅을 점령하면 어떨까 하는 그림을 그려 본다.

4 2 간담회 내용

- 서정화 :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이 교육 불평등 속에서 학교생활에 갈등하다가 학업을 중단한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일상 환경이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현재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아이들에게 하자센터든 직업체험 센터든 공교육이 아닌 청소년 관련 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학교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행복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교육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

진로교육이 강조되는 기저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완화를 기대하고 행복에 대한 고민, 목표의식으로 미래 개척, 이를 돕는 교육적 요구

가 강하게 발생하며 이는 모든 세대에 유효하다는 것이다.

하자센터의 업적은 신자유주의에서 밀려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모델을 민관, 산학이 연계하여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의학습+ 멘토지원+구직서비스’의 실험적 모형이 많은 성과가 있었다. 청소년기에 삶의 방식과 태도로서의 직업 교육을 강조하고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철학에서의 자신의 길 찾기 방식인 자유, 창조, 미디어 작업의 강점을 통한 청소년 언어 갖기와 스스로 표현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그럼 이 지역의 청소년은 어떠한가? 청소년의 욕구 조사를 통해 분석해보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고, 놀며 쉬며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일상 환경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역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필요하고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에서의 직업 체험은 삶터-일터-배움터의 연계형(학교-지역사회 연계)으로 나가야 한다. 단순한 어떤 다양한 직업의 체험만이 아닌 직업에 대한 태도, 가치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세계를 통한 새로운 배움, 즉 어른과 아이의 공동성장 ‘의미 있는 타자’와의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한다. 특별한 것에서가 아닌 일상적인 것에서 미래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심한기 : 왜 하자인가? 하자는 반지역적인 모델이다. 이 지역에 소박하게나마 지역의 모습, 개성을 담고 있는 모형이 아직 남아 있다. 이것을 잘 살리고 활용하자. 하자센터의 영향력은 크지만 성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 우수한 자원들이 모였지만 우수한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타인들과 관계를 맺어 가면서 세상을 배워가는 데는 소홀했다. 좋은 인간, 좋은 직업이 만들어졌느냐의 문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자의 진로체험, 직업연계를 가져오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좋다고 본다. 지금 하고 있는 희망적인 것들을 더욱 확장하고,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자, 구별 청소년 수련관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기해야 한다.

10대 후반의 아이들에게 진로직업교육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직로진업과 상관없이 자신이 해볼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면서 자신의 삶을 설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어를 만들어야 한다. 삶을 계획하고 설계가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10대와의 관계, 소통을 통한 돌봄과 배움이 함께하는 마을형의 장을 만들어 보자. 삶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철학을 주는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과 부적응 학생들은 돌봄이 절실하다. 그러나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상을 구별하지 않는 연결이 중요하고 대상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이영숙 : 도봉구는 재정 자립도가 낮고, 특히 청소년분야 사업은 미비하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고 철학이나 의식이 부족하다. 도봉구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이 4개가 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시설을 가진 자치구이지만 중요한 건 기관의 수, 건물의 수가 아니다. 건물은 많지만 도봉구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철학적 합의가 부족하고 지역 청소년 교육에 대한 역사도 짧다. 도봉진로직업체험 센터 역시 갑자기 진행되어 타 지역 한겨레문화 센터에 위탁되면서 지역과의 연계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지역 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관이 지원해야 좋다. 관이 먼저 나서는 일들은 곧 한계에 부딪친다. 그런 점에서 강북형 하자센터의 발의는 매우 좋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도봉진로직업체험 센터’ 내에서 하자의 내용을 담아내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청소년 시설 활성화를 고민해 보자.

- 김현수 : 청소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큰 사고를 치지 않게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을 교육의 장으로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지역에 청소년 관련 활동가가 부족하다. 네트워크와 학교 인력에 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일은 감당해야 할 영역(돌봄, 교육, 사후 관리 등)이 너무 넓다. 심지어는 숙식까지도 함께 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답답하다. 실제 청소년의 활동 시간대, 생활 패턴은 야행성이다. 이것 잘 모른다. 이들의 생활 지도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의 의식, 욕구,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최수연 : 녹지는 생명이다. 이것은 중요한 자산이라고 본다. 성미산학교는 땅이 없어 평창에 분교를 내고 1년씩 살다가 온다. 거기서는 손바닥만 한 성미산을 지키느라 애쓴다. 얼마나 좋은 자원인가. 앞으로의 전쟁은 먹거리 전쟁이고 자연은 곧 먹거리이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이다. 교사가 먼저 자연친화적이어야 한다. 성미산 학교는 농사짓기를 하고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교육을 한다. 가게 앞에서 파는데 모두들 까맣게 탔지만 즐거워한다. 먼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어야 한다.

43 종합 토론 요약

종합토론에서는 좀 더 실천적인 제안이 많이 있었다.

- 참가자들은 영등포 하자센터와 똑같은 하자를 이 강북에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보다 ‘강북형’에 방점을 찍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하자처럼 시설과 공간이 별도로 투입되기보다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문화의 집>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변명기 연구원은 노원의 직업체험센터, 품의 ‘무늬만 학교’ 등에도 강북형 하자가 꿈꾸는 자연친화적 내용과 샘플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였고 단순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넘어서는 방향성으로 마을중심, 마을형으로 가는 모델도 제시되었다.
- 특히 심한기씨는 ‘품’에서 3년간 실험 중인 ‘무늬만 학교’의 경험을 소개 하였는데 탈학과 재학을 분리하지 않는 다양한 청소년을 하나의 장에서 소통하게 하는 점이 많은 호응을 얻었다.
- 하자가 하자일 수 있었던 이유 -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읽는 철학과 담론의 생산, 즉 ‘말’ 만들기 -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관이 주도하기보다 현장에서 제안되고 논의되는 방식으로 ‘강북형 하자의 설립을 위한 연구’와 같은 장이 좀 더 자주, 폭넓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영숙의원의 의견은 연구진을 고무시켰다.
- 다른 한편으로 지역은 친환경적이지만 아이들의 관심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갭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고민이 나오자 성미산 학부모인 최수연씨가 아이들은 기회가 닿으면 친환경, 생태, 농작물 생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성미산학교의 경험을 들려주며 그래서 당연히 친환경적 직업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자연친화적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 없이 모두 동의하였지만 막상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참가자 대다수가 어려움을 표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지역에서 청소년과 관련하는 조직이나 모임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더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 소리가 나게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남을 자주 가지자는 화답을 주고받으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강북3구의 자연자원 찾아보기

강북3구의 대표적인 지리적 특성은 서울을 상징하는 북한산을 비롯해 북동쪽으로는 도봉산과 수락산, 불암산이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싸고 있고 녹지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조사하여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북한산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의 자연공원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많은 문화재와 자연친화적인 자원을 보전하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1983년 우리나라에서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약 76.922km²의 면적으로 우이령을 중심으로 남쪽의 북한산과 북쪽의 도봉산 지역으로 구분된다. 접근이 용이한 교통체계와 거대한 배후도시를 배경으로 연평균 탐방객이 서울 인구에 가까운 8백만 명(표 3-2 참조)을 넘고 있어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이다.

표 3-2 북한산 국립공원 연도별 탐방객수¹⁰

(단위 : 명)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탐방객수	10,190,803	8,966,541	8,653,807	8,508,054	8,145,676

2012년도 국립공원기본통계에 의하면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1,3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서울의 허파 구실을 하고 있으며, 삼국시대 이래 과거 2,000년의 역사가 담겨진 북한산성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

¹⁰

2012년 국립공원기본통계 탐방관리 참조. 2007년에 급격하게 탐방객수가 늘어난 것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유적과 100여 개의 사찰, 암자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생태, 문화, 역사 학습장소를 제공하고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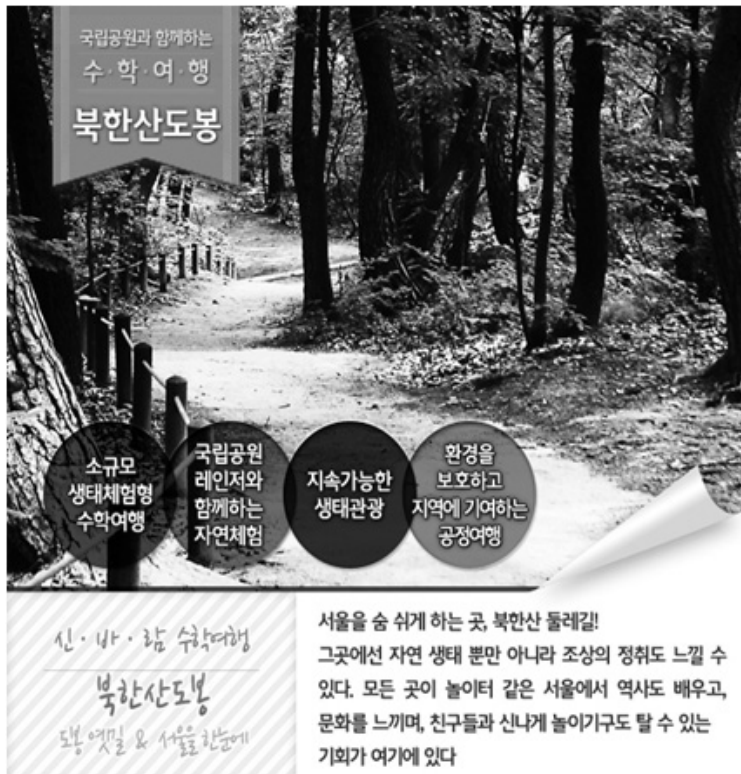


그림 3-1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시행 중인 수학여행프로그램

2013년 북한산국립공원에서는 탐방프로그램으로 자연생태(숲에서 놀자, 공예 교실, 자연여행, 어린이학교 등), 역사문화(북한산성의 옛 자취를 찾아서 등), 실버교실, 탐방 안내 등 28개의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11) 북한산 국립공원과 여행사가 북한산 국립공원 수학여행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서울창포원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 도봉산역 인접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창포원은 2009년 서울시에서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특수공원이다. 서울창포원은 약 1만6천여 평(52,417㎡)에 이르는 면적에 세계 4대 꽃 중 하나로 꼽히는 붓꽃을 자랑하는 특수식물원이다. 15,000㎡의 면적에 130여 종의 붓꽃 30만 본이 식재되어 있어 다양한 붓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약용식물원에는 70종 13만 본의 약용식물이 식재되어 있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식물 대부분을 한자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습지원에는 습지식물 7만 본이 식재돼 있으며, 각종 수생식물과 습지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 이 밖에 군락지 식생의 변화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천이관찰원과 숲속 쉼터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생태교육 및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2 서울창포원 안내 사진

강북3구에는 도봉구에 위치한 초안산 근린공원, 노원구에 위치한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은 서울시에서 산림 생태계로 지정되어 있고, 수락산은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불암산 삼육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산 이외에도 노원구와 도봉구를 가르는 중랑천이 흐르고, 도봉구와 강북구를 가르는 우이천이 흐르고 있어 많은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도시농업 알아보기

가정과 학교에서 상처받고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강북형’ 하자센터 모색의 마지막 단계에서 농업분야의 일면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농업의 중요성이라는 점에서 식량자급률과 식량주권 문제를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체험학습과 일자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도시농업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그림 3-3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추이

OECD 주요국 식량자급률

(단위: %, 2010년 기준, 네모 안은 순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그림 3-4 OECD 주요국 식량자급률

61

식량주권으로 본 농업의 중요성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90년 43.1%에서 2000년 29.7%로 하락한 뒤 2012년에는 23.6%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OECD 33개국 가운데 28위로 최하위 국가로 꼽히고 있으며 식량의 7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나마 80%대인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5%대로 푹 떨어져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주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호주는 241%, 프랑스 174%, 캐나다는 180%의 곡물자급률을 보이고 있다.¹² 미국, 스웨덴, 독일, 영국 또한 곡물자급률이 95~150%에 이른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유독 떨어진다.¹³ 우리나라 주곡인 쌀의 자급률은 2006년 90%대로 하락한 이후 2010년

¹² 그림 3-4 주요 선진국의 곡물자급률은 2010년도 통계로서 최근에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¹³ 동아경제(2013년 9월 11일) 인용

에 105%로 상승했다가 2011년 83%, 지난해 86.4%로 하락하였다. 2년 전 정부는 국제 곡물가격 불안과 기상이변 등으로 식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가자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곡물자급률을 2015년 30%, 2020년에는 32%로 연차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계획을 2017년 30%, 2022년 32%로 각각 2년씩 미루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0년대 초반까지 약 43%이던 식량자급률이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것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업 구조조정 결과로 농업의 생산 기반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 인구의 비중은 1990년 25.6%(1,110만명)에서 2010년 18.0%(875만명)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곡물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 등으로 식량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비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 기상이변이 급증하고 수확량은 감소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업 전문가들은 예전에는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이 산업 경쟁력과 정보·기술이었지만 머지않아 식량자급률 등 농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¹⁴

6 2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동네마다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매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생활협동조합(생협)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대표적인 생협은 한 살림, 아이쿱 생협, 민우회 생협, 두레 생협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 시작된 로컬푸드운동¹⁵도 널리 확산

14

2013년 7월18일 전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제1차 세계식량 포럼 발표 중

되는 추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말농장이 도시인들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도시농업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2011년 10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내 도시농업 역사에 큰 획이 그어졌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해 2012년을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조례’를 공포하였다. 이어 ‘도시농업 2020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서울 도심을 도시농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서울시 2013년 ‘도시농업 사업계획’은 생활공간 모두 도시농업 실천사업, 시민 누구나 실천이 가능한 도시농업 사업,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농업 사업, 농업을 통한 힐링 사업, 도시농업 저변확대 사업 등 총 5개 과제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020년까지 가구당 3.3㎡의 도시텃밭을 보유한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 목표가 현실화되면 도시텃밭이 10배¹⁶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로 552개+알파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얼마 전 모 시사 주간지¹⁷와 한 인터뷰 내용은 서울시 도시농업의 전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시장은 도시농업이 숨어 있던 청년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는 학교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쿨팜 강사, 원예 치료사, 농부의 시장 개설자 등 560명

15 로컬푸드운동(local food movement) :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 먹거리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줄여보자는 운동

16 2012년 12월 현재 가구당 면적은 0.3㎡임.

17 (시사저널, 2013.10.1) “도시농업이야말로 꼭꼭 숨어 있던 청년 일자리 창출의 보고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는 아이들의 인성 교육과 정서 함양을 위해 학교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쿨팜 강사, 식물을 이용한 원예 활동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돕는 원예치료사, 농부 시장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농부의 시장 개설자 등 5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도시농업 콘텐츠 기획자와 상자텃밭 디자이너 등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도시농업 콘텐츠 기획자와 상자텃밭 디자이너 등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도 수십 년 버려진 땅을 개발하고 상자텃밭을 주민들에게 분양하는 등 도시농업에 팔 걷고 나서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축제는 구두, 책상서랍, 전기밥솥, 주전자 등 생활 폐품을 활용한 어린이 작품들이 등장할 정도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흥겨운 마을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서울시는 은평구에 도시농업 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가 등장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도시농업이 도시인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받는 것은 단순히 농업 생산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우리 삶에 더 큰 위안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농업 운동가들의 교육 자료에는 도시농업의 효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도시농업의 효과

〈심리사회적 효과〉

- 성취감과 자아만족감 부여 • 창조적 인간성 함양
- 생명에 대한 이해와 생명 존중 • 변화에 능동적인 삶의 자세 함양
- 청소년의 자아발달에 긍정적 기여

〈경제적 효과〉

-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 농업 인식 전환으로 농업 중요성 자각

〈생태환경적 효과〉

- 도시 건조화 완화 및 도시 홍수 방지, 지하수 보유 향상
- 도시 열섬현상 완화 • 도시 공기 정화로 대기환경 개선

- 자연적 기후조절로 냉·난방 자원 소비 감소
- 교토 의정서를 위한 대기환경 문제 해결방안
- 실내 환경 개선 • 도시경관 미화
- 생물종 다양성 회복 • 방음, 차폐 효과

IV 대안모델로서의 강북형 하자센터

- 1 세 가지 키워드
- 2 강북형 하자센터의 체계와 내용

IV 대안모델로서의 ‘강북형’ 하자센터

1 세 가지 키워드

제3장의 ‘강북형’ 하자센터의 모색을 위한 여섯 단계는 강북3구가 갖고 있는 자연·지리적 특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찾아보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강북형’의 개념이 일정하게 제시된 셈이다. 그 키워드를 3개로 압축하여 제시하고 한다.

첫 번째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로서 생태와 환경을 꼽았고, 두 번째는 경쟁교육으로 피해를진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와 힐링을 꼽았으며, 세 번째는 농산업 중심의 자연친화형 직업세계로 연계되는 직업체험을 꼽았다.

1.1 키워드 하나 - 생태환경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생태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문명과 발전이라는 개발논리에 밀려 무분별한 자연 훼손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거듭되는 자연재해의 경고음이 들려오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유엔(UN)이 2005~2014년을 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으로 선포하고 국가별 이행계획 수립을 권고하였고 선진국들은 나라마다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가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녹색과 에코라는 말은 우리 삶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환경운동 초기의 쓰레기 줍던 환경 캠페인에서 이제는 우리의 의식주에 생태라는 말이 보편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

- ‘강북형’ 하자센터의 첫째 키워드를 생태환경으로 꼽은 것은 청소년 시절에 좀 더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판단 때문이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자연 속에서 명상하고 사유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자연 친화적인 교육, 경쟁보다 공존과 나눔을 배우게 하는 교육, 생태적인 삶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배우게 하는 교육이야말로 ‘강북형’ 하자센터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

12 키워드 둘 - 치유와 힐링

- 경쟁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치유와 힐링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말 산행은 오래 전에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마을마다 생긴 둘레길을 찾는 행렬도 익숙해진 지 오래 되었다. 어려서부터 생태적인 삶을 익히기 위해 숲 유치원이 생기고 숲 학교가 이어지고 있다.
-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12년 국유림 3곳을 치유의 숲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34개의 국·공유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개설되어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을 받은 숲 속 학교를 전국의 산림에 수 백 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후 수백 명의 산림치유지도사를 양성하여 개인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 치유와 힐링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아마 무한경쟁교육으로 세계 최장의 학습노동과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일 것이다. 학업성취도가 세계 선두라는 말이 부끄럽게도 만족도는 꼴찌에 자살률은 1위라는 불명예가 따라붙는다. 야만적인 우리 사회의 치부가 아닐 수 없다. 자살이나 학교폭력이 백지장 한 장 차이이고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위기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 특히 앞의 심층면담에서 보았듯이 학업중단 과정에서 깊은 좌절과 상처를 안고 사회로 떠밀려나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이나 직업체험 이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치유와 힐링일 것이다.
- 이는 치유와 힐링을 ‘강북형’ 하자센터의 두 번째 키워드로 잡은 이유이다.

13 키워드 셋 - 농업, 직업체험

- 제3장에서 농업의 중요성과 도시농업의 효과를 살펴본 것처럼 21세기는 식량주권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식량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직업이 당위성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도시농업의 효과에서 보았듯이 앞으로 도시농업의 발전은 고실업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의 전망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 또한 산림청은 2017년까지 7조7천억 원을 투입해 임산업을 활성화시키고 5년간 3만5천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총 29만개의 일자리로 확대한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문직으로 산림탄소전문가, 수목원전문가, 나무의사 등 고급 일자리 1천2백 개를 비롯해 청·장년을 위한 일자리 2만8천여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 농업은 고실업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본이 없고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강북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강북형’ 하자센터를 통하여 직업세계로의 진로를 만들어 줄 책무가 있다.



그림 4-1 '강북형' 하자센터의 체계

2 강북형 하자센터의 체계와 내용

세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강북형 하자센터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가 이번 연구의 주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강북형 하자센터의 체계와 내용으로 생태환경 체험센터, 치유와 힐링 체험센터, 농업분야 직업체험센터로서의 기능이 서로 통합되는 통합형으로서 '강북형' 하자센터의 상을 제시하고 한다.

다음에 소개되는 프로그램은 충분히 준비된 것이 아니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와 단체들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시로 소개하는 것이다.

강북3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생태환경 교육과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센터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탐사와 생태 지도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강북지역은 산림생태(북한산), 하천생태(우이천, 중랑천), 도시공원생태(도봉산 국립공원, 서울창포원, 꿈의 숲 등) 등 자연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치유와 힐링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세계 최장의 학습 노동과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일 것이다. 특히 학업중단 과정에서 좌절과 상처를 안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치유와 힐링일 것이다.

○ 생태탐방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자연 탐사를 통하여 숲 지도, 식물지도, 생태지도 등을 만들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아이টে으로 시도해 볼만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 숲 해설가 양성 프로그램

강북3구에 위치한 산림을 이용한 숲 해설 및 놀이 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숲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가 진행 중이며 숲 해설, 놀이 지도사 등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등산학교 프로그램

북한산 국립공원 방문객은 연간 8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히말라야를 비롯해 해외의 명산을 찾는 인구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눈을 돌려, 도봉산에 있는 등산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등산 전문가 및 트래킹 가이드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다.

○ 동·식물도감 제작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서울의 대표적인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수락산 등에서

식하는 동·식물도감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연학습 및 안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하천 수질 지킴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COD를 활용해 중랑천, 우이천 수질을 측정하여 수질오염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2 치유와 힐링센터

- 숲 속 학교 프로그램

숲 속 학교는 청소년의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고 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크다는 데 착안한 교육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향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산림 치유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산림을 이용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산림치유지도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망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 원예 치료 프로그램

원예치료는 식물 또는 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해 육체적 재 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힐링기법이다. 원예치료 적용 방안과 육성 방안은 각종 학교와 요양병원에서의 성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강북 3구의 청소년들에게도 원예치료가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일 뿐 아니라 장래 직업으로서의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2.3 농업분야 직업체험센터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청소년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중학교 한 학기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시범실시를 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강북3구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생태 및 환경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강북형’ 하자센터는 이러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 영농체험 프로그램



그림 4-2 도봉구 친환경 영농체험장



그림 4-3 서울시 거리 꽃밭 조성사진

도봉구 창포원 옆에 ‘도봉구 친환경 영농 체험장’이 있다. 현재는 지역주민들과 학교, 지역단체들이 도시텃밭으로 이용 중이다. 이곳을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친환경 영농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특용작물 및 화훼재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서울창포원을 실습장으로 특용작물 및 화훼를 재배하는 프로그램이다. 화훼와 원예 직업과의 연계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도시미화에 필요한 다양한 꽃·나무들을 직접 재배하여 공급하는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도시농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수경재배 프로그램

수경재배는 흙 대신 물과 영양분으로 만든 배양액으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말한다. 배양액 재배 방식은 시설재배 방법 중에서도 최첨단 방식

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려는 시대의 추세와 맞물려 미래의 첨단 농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 도시농업에 맞는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다.

○ 버섯재배 프로그램



그림 4-4 가정버섯 재배사진

이 프로그램은 한국농수산대학 버섯학과 장현유 교수가 도봉산 자락 한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수강하는 사람들은 가정버섯 재배를 위한 일반인을 비롯해 창업이나 해외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하다. 버섯 재배사 자격시험을 위해 실기위주로 진행되며 지방에서는 물론 버섯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교포들도 수시로 자격증 획득을 위해 집단으로 찾아오고 있다.

장현유 교수는 차가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녹각영지 등 새로운 버섯을 개발한 한국 버섯학계의 권위자로서 버섯산업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소개해주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농업분야의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무료수강과 직업세계로의 연계가 가능하다.

- 귀농 프로그램

귀농학교 등 농업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한 농촌교류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 2 정책제언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2의 하자센터’의 대안모델로서 강북지역에 ‘강북형’ 하자센터를 건립하자. 현재 진행되는 은평구(서북권) ‘제2의 하자센터’ 건립과 동시에 소외된 지역인 동북권에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 강북3구는 경제사회적, 교육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치유와 직업에 대한 전망을 열어주어야 한다.
- ‘강북형’ 하자센터는 이 지역의 산림과 녹지 등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생태환경 체험센터, 치유와 힐링센터, 농업분야의 직업체험센터가 통합된 통합형 하자센터로 구상하고 있다.

2 정책제언

- 서울시의 ‘제2의 하자센터’ 설립 계획에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세 가지만 제언하고자 한다.
- 첫째, 영등포 하자센터의 한계로 지적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이 활용되고 지역에서 직업의 전망을 만들어가는 ‘지역형’이 되어야 한다.
- 둘째, 영등포 하자센터가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가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 청소년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대한 대안으로서 생태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형’이 되어야 한다.
- 셋째, ‘제2의 하자센터’는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와 학업중단 과정에서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처를 고려하여 직업체험과 동시에 치유과정 이 병행되는 치유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최상근·양수경·남기곤, 2010,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2013, “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 백서”
- 국립공원공단, 2012, “국립공원 기본통계 탐방관리” 자료
- 서울시, 2012,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 담당관) 자료
- 서울시, 2010~2012 서울통계
- 서울시교육청, 2010~2012 서울교육통계 연보
- 노원구, 2013, “청소년 지킴이 1388”, 노원구청 여성가족과 노원청소년지원센터 자료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2013,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교육청 제출 자료
- 강북구·노원구·도봉구, 2013, “구 일반현황” 자료
- 장덕기, 2013, “전남 로컬푸드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 조한혜정 외, 2002, “왜, 지금, 청소년?”, 또하나의문화 출판사
- 아영아·정원철, 2007, “부모위험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이르는 발달경로”, 청소년학 연구
- 이경상, 2011, “빈곤이 청소년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2, “ADHD의 사회적 문제들”, 추계학술대회
- 김현국 외, 2011, “서울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 조사와 예방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연구”, 서울시 교육청

작은 연구 좋은 서울

2012

01	특화거리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 종로노점거리를 중심으로	홍인옥
02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 활동거점 만들기	남지현
03	서울의 새로운 문화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	이원재
04	커뮤니티디자인이 마을공동체 형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문수
05	마을공동체사업에 따른 마을형 주거복지연계방안 연구	이주원
0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수 해외사례 연구	임화진
07	문래예술공단 환경조형물 제작 생태계 조사 연구	김 강
08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의 서울시 사회경제정책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문진수
09	개미이웃	이유정

2013

01	노숙인 문화예술창작공간 설립의 타당성 연구	김지연
02	의료기관 CCTV 운영 및 오남용 실태조사	김준현
03	서울 학교 햇빛발전소 실태조사와 개선방향 연구	박규섭
04	서울시 문화공간의 담론적 구성 : 홍대 공간을 중심으로	김수아
05	서울시 사대문 안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기초 연구	이윤희
06	을지로 인쇄 제조업 집적의 구조와 생활세계 연구	김봉렬
07	‘강북형’ 하자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 연구	이부영
08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본인의 서울관광동향 분석	백리나
09	전통시장의 사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토지협동조합 모델 연구 :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조성찬
10	도쿄는 어떻게 원전 하나 줄이기에 성공했는가?	이현석

서울연 2013-PR-23

‘강북형’ 하자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 연구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3년 8월 24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19

비매품 ISBN 978-89-8052-553-9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